

## 학술대회발표논문집

# 2012년 대한언어학회 가을 학술대회

- 주제: 언어학 연구의 실제적 활용 - 이론, 교육 및 표기법을 중심으로
- 장소: 광주 전남대학교 진리관(경영대학과 인문대 1호관 사이)
- 일시: 2012. 10. 20(토) 09:00 ~ 18:00
- 등록비: 1만원(점심 및 프로시딩스 포함)
- 주최: 대한언어학회
- 주관: 전남대학교 영어교육과
- 후원: 한국연구재단, 전남대학교

- \* 이 발표논문집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발간 되었음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 한국어 대조담화표지 연구

안 정근·최 은정  
(전북대학교)

## I. 연구개요

담화표지란 Schiffrin(1987:31)에 의하면 대화 단위를 묶는 데 사용되는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의존요소로서 대화의 단위들을 묶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oh, well, and, but, so, now, you know'와 같은 낱말이나 문장을 일컫는다. 최근 언어습득이나 언어교육에 있어서 실제 의사소통을 위한 화용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면서 담화상에서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담화표지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소위 대조담화표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화표지들의 경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거의 없는 편인데, 대조담화표지의 경우에도 그 종류나 특징, 기능뿐 만 아니라 대조표지간 범위역(scope) 문제도 거의 다뤄진 바가 없다. 또한 이러한 대조담화표지의 실제 담화에서의 쓰임에서의 담화기능에 관한 내용도 정리된 바가 없는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로 Fraser(1998, 2009, 2010)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먼저 2장에서 담화표지와 대조담화표지의 일반적 특징과 종류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한국어 대조담화표지의 종류를 실제 담화를 이용한 빈도조사를 실시하여 알아본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조담화표지의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각각 살펴본다. 결론인 4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상의 논의가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Fraser(1998)는 담화표지의 기능으로서 전후담화의 연결기능을 가장 중요시하고 이에 Fraser(2009:87)는 이러한 담화표지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하고 but, and, so가 각 집단을 대표하는 표지로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 (1) a. contrastive discourse markers (CDM) : but, however, instead, ...
- b. elaborative discourse markers (EDM) : and, furthermore, in addition, ...
- c. inferential discourse markers (IDM) : so, thus, as a result, ...

Fraser (1998)에 의하면 표(2)와 같은 표현들이 모두 대조담화표지로 규정되며, 그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나뉘어진다.

(2)

범주	종류
대조(Contrastive)	a. <i>but</i> b. <i>however, (al)though</i>

	<i>c. on the other hand, alternately</i> <i>d. in contrast(with/to this/that), whereas</i> <i>e. in comparison(with/tothis/that)</i> <i>f. conversely</i> <i>g. all the same, despite (doing) this/that even so, inspite of (doing)this/that, nevertheless, nonetheless, still</i>
정정(Corrective)	<i>a. instead (of (doing) this/that)</i> <i>b. rather (than (doing) this/that)</i>
반대(Objective)	<i>on the contrary, quite the contrary, contrariwise</i>

또 Brown(2001:301)에 의하면, 대조담화표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가능하다.

	범주	종류
(3) 대조(contrastive)	대체 (replacive)	alternatively, again, rather, on the other hand
	대조 (antithetic)	conversely, instead, on the contrary, by contrast
	양보 (concessive)	anyway, anyhow, but, however, nevertheless, still

따라서 대조담화표지는 담화상, 화행의 논리적 흐름을 위해 담화의 선후 의미적 결속을 표현하기 위한 선택적 장치로서 선후담화(명제)의 대조, 전환, 정정, 반대, 양보의 담화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III. 한국어에서의 대조담화표지

#### 3.1. 한국어 대조담화표지의 종류

안주호(2009)는 한국어 급별 교재에서 나타나는 담화표지를 형태에 따라 나누는데, 담화표지의 품사 유형은 감탄사, 부사, 의문사, 구, 절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는 1급(초급과정)에서 4급(최고급과정)까지 정리되어져 있다. 이러한 교재에 나타난 담화표지들은 실제 한국어 대화에서 쓰이는 것으로써 담화상의 표현과 이해의 전략으로 한국어교육에서 필수적이며, 실제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담화표지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을 가진다. 따라서 안주호(2009:149~151)에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담화표지들은 다음 표(4)와 같이 통합되어 나타내어 질 수 있는데, 한국어 대조담화표지는 안주호(2009:151)의 표(4)의 담화표지 유형을 참고하고, 앞서의 대조담화표지의 정의에 따라 담화상 대조, 전환, 정정, 반대, 양보의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를 대조담화표지의 기본적인 기능적 제약(functional constraint)으로 보고 추출하고 정리하여 표(5)과 같이 나타내었다<sup>1)</sup>.

1) 표(5)에는 나타나지만, 표(4)에서 나타나지 않은 대조표지들은 드라마스크립트 분석에서 찾아낸 대조표지들을 참고하여 보충하였는데, 이 자료는 민영방송의 가족드라마인 시크릿가든 1편~2편까지(총 21,899단어)에서 담화에서 사용된 대조담화표지를 조사하여 보충한 것으로 따라서 모든 대조담화표지가 망라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4)

유형	서울대 교재	연세대 교재
감탄사 담화표지	네, 아/아야/하하/어휴, 아이/여보/ 아이구/어머, 와/에이 참/아야/아 휴, 어어어, 애들아/여보/애, 응	예, 아니, 자, 아 아이구, 오냐
접속어 담화표지	그래(요), 그럼(요), 그런데(도), 그 러면, 그리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 나,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리고(는), 그래요, 그 럼(요), 그러나, 그런데, 그래서, 왜냐하면, 하긴, 그러니까, 그렇 다고, 그래도, 그러므로
부사어 담화표지	글쎄(요), 또한, 좀, 물론, 참, 하 여튼, 더군다나, 아무튼, 하여튼, 따라서	뭐, 참, 어디, 글쎄, 또한, 좀, 하 여튼, 물론(이예요)
구결 담화표지	그렇지 않아도, 그렇고 말고, 아 닌 게 아니라, 물론 그렇지요, 그 건 그래요, 그건 그렇지, 그게 아 니고, 하긴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런게 아니라(1), 그건 그렇고 (1), 그 뿐만이 아니예요, 뿐만 아 니라, 웬걸요
용언 담화표지	그렇(대요/군요)	그러지요, 그렇군요, 괜찮아요

(5)

유형	종류
감탄사	아니요/아뇨, 아, 저, 아이구, 참나, 얼씨구, 어라, ...
접속어	그러면/그럼, 그런데/근데/그런데도, 그러나,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습니다만, 그렇다치고, 그렇다고, 그래도, 하지만, 그러니까/그니까, 그러다가, 하긴, 이것보다는, 교체로, ~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혹은, 그나저나, 아니면/아니라, ...
부사어	글쎄(요), 좀, 참, 하여튼, 더군다나, 아무튼, 여하튼, 따라서, 뭐, 참, 또한, 어디, 단지, 하물며, 역으로, 또는, 대신/대신에, 대조적으로, 역시, 한편, 오히려, 반면에,...
구결	그래서 그런지, 그건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말이야, 아닌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웬걸(요), 뭐라구요/뭣이 어찌고 저찌, 그건 그렇지요, 기대에 어긋나게(시리), 기대에 반대로/그와는 반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교해서/비교해보면, 그래봤자, 다른 한편으로는, ~일지도 모르니까, 좀 그래서, ...

실제 담화에서 사용되는 대조담화표지의 사용빈도에 따른 위계와 그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 표(5)에서 나타난 접속어와 부사어의 자료에 따라 한국어에서의 대조담화표지의 빈도분석을 해보았다. 담화형태에 따른 대조담화표지의 빈도와 그 특징을 분석 가능하도록, 첫째, 비격식적 담화특성을 드러내는 가족드라마 스크립트를 분석하고, 둘째, 격식적/비격식적 변이를 비교하기 위해 인터뷰 전사자료(2011)를 비교하였다. 셋째, 공식적/비공식적 비교를 위해 TV 공영방송의 뉴스, 라디오 뉴스, TV오락방송을 방송 스크립트로 묶어 비교하고, 넷째, 구어와 문어의 대조담화표지의 비교분석을 위해 우수석사논문상을 받은 석사논문 발표요지문 6개를 모아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보았다. 각 표본자료는 공평성을 위해 각 2만 단어로 한정하고 표(6)과 같이 각 항목에 따른 대조담화표지의 빈도수를 도출할 수 있었다.

(6)

(frequency per 20,000words each)

no	Drama Script		Interview Script		Broadcast Script		Thesis	
1	는데	211	는데	218	는데	160	지만	45
2	어?	119	아니	134	아니	100	는데	38
3	좀	58	그래서	98	좀	52	아니	28
4	근데	58	그럼	78	그래서	51	그러나	23
5	그럼	51	그러니까	68	지만	50	아니라	22
6	지만	49	그러면	60	근데	34	하지만	18
7	참	38	좀	46	그럼	26	으나	14
8	혹시	31	지만	46	그러니까	20	혹은	11
9	혹은	30	근데	42	그런데	19	역시	10
10	뭐?	29	그런데	35	그러면	14	좀	7
11	하지만	27	아니라	21	그래도	12	대신	4
12	아니	20	아니고	19	역시	12	그런데	3
13	그러니까	19	참	15	그러나	11	~에도 불구하고	3
14	그래서	18	그래도	9	혹시	8	그럼	1
15	대신	16	혹시	7	아니라	7	혹시	1
16	아니라	15	하지만	6	대신	5	그렇다고	1
17	그런데	8	글쎄	6	하지만	4	그러면	1
18	그러다간	7	어라	6	아니고	3	어?	0
19	아뇨	7	어?	4	그렇지만	3	근데	0
20	그래도	6	대신	3	글쎄	2	참	0
21	하긴	5	뭐?	2	~에도 불구하고	2	뭐?	0
22	글쎄	5	그러나	2	하물며	2	그러니까	0
23	어라	4	그랬다면	2	하긴	1	그래서	0
24	그렇다고	4	하긴	1	그러다가	1	그러다간	0
25	그나저나	4	그렇다고	1	어?	0	아뇨	0
26	으나	3	그러다가	1	참	0	그래도	0
27	아니고	3	혹은	0	혹은	0	하긴	0
28	그렇습니다만	2	그러다간	0	뭐?	0	하물며	0
29	~에도 불구하고	2	아뇨	0	그러다간	0	글쎄	0
30	역시	2	그나저나	0	아뇨	0	어라	0
31	그렇다치고	1	으나	0	어라	0	그나저나	0
32	그니까	1	그렇습니다만	0	그렇다고	0	아니고	0
33	그러다가	1	~에도 불구하고	0	그나저나	0	그렇습니다만	0
34	하물며	1	역시	0	으나	0	그렇다치고	0
35	그러나	0	그렇다치고	0	그렇습니다만	0	그니까	0
36	그러면	0	그니까	0	그렇다치고	0	그러다가	0
37	그렇지만	0	하물며	0	그니까	0	그렇지만	0
38	이것보다는	0	그렇지만	0	이것보다는	0	이것보다는	0
39	교체로	0	이것보다는	0	교체로	0	교체로	0
40	그랬다면	0	교체로	0	그랬다면	0	그랬다면	0
합계		855		930		599		316

(6)의 자료를 통해 담화형태에 따라 담화특징과 그에 따른 빈도상 상위 10개 담화표

지를 추출해 본 결과 표(7)와 같이 정리되며 그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7) 자료 종류	담화 형태		담화 특징	빈도상 상위 10개 대조담화표지
구어	2인 이상의 담화(dialog)	드라마 스크립트	비격식적 비공식적	는데>어>좀>근데>그럼>지만>참>혹시>혹은> 뭐
		인터뷰	격식적 비공식적	는데>아니>그래서>그럼>그러니까>그러면>좀 >지만>근데>그런데
	1인 담화 (monolog)	방송 스크립트	격식적, 공식적	는데>아니>좀>그래서>지만>근데>그럼>그러 니까>그런데>그러면
문어	논문		공식적	지만>는데>아니>그러나>아니라>하지만>으나>혹 은>역시

총 대조담화표지의 사용빈도는 interview(930)> drama(855)> broadcast(599)> thesis(316)으로 구어담화중에서도 인터뷰가 가장 많은 대조담화표지를 사용하였으며, 문어인 논문에서 대조담화표지의 역할이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드라마의 경우 비격식적인 화행특징으로 인해 ‘어?’나 ‘좀’, ‘참’, ‘뭐?’와 같은 감탄사위주의 대조담화표지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인터뷰/방송용 스크립트엔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그런데’의 줄임말인 ‘근데’의 경우 구어담화에선 압도적인 사용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문어에선 ‘그런데’만 사용되어지고 있다. ‘아니’의 경우 ‘아니, 아니고, 아니라, 아뇨, 아니거든, 아니지’ 등으로 나타나는데 ‘아니’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조사의 대조표지 역할보다는 어근자체가 대조표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어담화 전체에서 나타나는 상위 10개 대조담화표지는 ‘는데, 아니, 그래서, 그럼, 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런데, 하지만, 대신’으로 정리 가능하였다.

### 3.2. 한국어 대조담화표지의 특징

#### 3.2.1. 형태적 특징

대표적인 대조담화표지인 ‘그런데/그러나/그렇지만’의 경우를 보면, ‘그러’를 어간으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한 공유표지들을 가진다. 대체적으로 ‘그’라는 어근에 여러 접사가 중첩되어지는데 이때 조사 뿐 만 아니라 다른 용언들이 합성되는 구조를 보이며, 따라서 어떤 표지의 형식은 낱말이거나 어절의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예문 (8)에서 보면 같은 대조담화표지라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담화표지의 형태는 ‘그러’라는 어근의 기능보다는 접사나 조사들의 의미나 기능에 따라 담화상 사용되는 용례나 그 뜻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는 상기 표지들의 어근의 경우 지시적 용법이 강하므로 대조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8) a. 엄마가 사탕을 한 개만 사줬어. 그런데(\*그래서/\*그러니까/\*그렇지만) 아빠가 그걸 먹어버렸어.  
b. 나도 잘 몰라. 그렇지만(\*그런데/\*그랬다가/\*그래놓고) 어떤 놈인지

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다리몽둥이를 부러 뜨려놓겠어.

그러나, ‘아니’의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아니, 아니고, 아니라, 아뇨, 아니거든, 아니지’ 등으로 사용되어 지는데 아니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조사의 대조표지역할보다는 어근자체가 대조표지의 역할을 한다. ‘아니’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엔 감탄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화제전환의 표지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고, 여러 조사가 붙을 수 있어 다양한 대조 표지들이 생산가능하다. 이는 ‘~에도 불구하고’에서 어근인 ‘불구’가 대조표지로 쓰일 때 ‘\*불구하니/\*불구해서/\*불구거든’처럼 쓰일 수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 ‘불구하고’는 선행문에 ‘~에도’와 함께 쓰일 경우에만 대조담화표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때 다른 조사와의 결합도 불허한다.

### 3.2.2. 통사적 특징

#### 1) 위치

대조담화표지의 경우, 담화표지와 마찬가지로 담화 구조상에서는 도입(시발 표지)-화제(전환 표지)-종결(종결 표지)로 나타나며, 문장에서는 문장의 맨 앞에 나타나거나(9a), 접속사로 나타나거나(9b), 감탄사로 나타나거나(9c) 문장의 종결어미(9d)로도 나타난다.

- (9) a.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런다니?  
b. 나는 *그거* 본래 싫어하는데 오늘 한번 먹어보지 머.  
c. *엄마는*(핀잔주듯이)? *도대체*, 내가 바본 줄 알아?  
d. *배는* 아직 많이 아파요. *실사는* 멧었는데.

#### 2) 주제표지

한국어 대조담화표지는 선행문이나 해당 문장에서 주제표지인 ‘-은/는’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김정란(2009)은 대조주제(contrastive topic)나 대조술어주제(contrastive predicate topic)인 ‘-은/는’을 대조표지로 보고 대조주제문이나 대조초점확인문에서 사용된다 하였다.

- (10) a. A: *엄마가* 차에 탔니?  
B: [*내려오기*]는 했어.  
b. A: *철수가* 누굴 좋아하니? *영희를* 좋아하니?  
B: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지*]는 않아.

위 예문에서 (10b)의 B의 대답은 (10b) A의 초점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하는 초점구조확인문으로서 이러한 초점구조확인문은 ‘은/는’이라는 대조표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은/는’이라는 대조표지는 이러한 초점문이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선행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화적 환경이 주어져야하며 *엄마가 내려오기는 했지만 차에 타*

지는 않았거나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관심은 있는 정도의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조표지가 담화적 기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대조담화표지로서 사용하기엔 설명적 타당성이 부족한 듯하다. ‘-은/는’이 대조표지로서 쓰일 수 있는 것은 담화상 이러한 대조주제문이나 초점구조 확인문이 나올 경우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후행담화에서 나올 발화의 시작이 대조담화표지로 시작됨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제표지 ‘-은/는’은 대조담화표지와 함께 쓰이지 않는 경우 담화상 함축적인 기대나 예상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 대조담화표지라고 일컫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조담화표지는 선행문장에서 ‘-은/는’의 주제표지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영어와는 다른 한국어의 대조담화표지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 3) 배열(sequencing)

- (11) a. Don't study Math, *but instead* study Linguistics.  
 b. I think we should leave. *Yet, on the other hand*, there may be something in waiting.

(Fraser, 2010:1)

영어의 경우 예문 (11)와 같이 대조담화표지의 중첩을 허용한다. 한국어에서도 예문 (12)와 같이 배열상에 있어서의 중첩을 허용함을 볼 수 있다.

- (12) a. 밥을 먹기는 먹었어? 근데, 아닌게 아니라 몰골이 왜 그래?  
 b. 그가 군대에 가버렸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안되는 거였다.

영어에서 중첩은 예문 (13)처럼 대조담화표지가 EDM이나 IDM과 함께 순서에 상관 없이 사용되어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3)의 예문에서 보듯 한국어에서도 동등하다<sup>2)</sup>.

- (13) a. The water didn't boil. *So, instead*, we had coke. [IDM-CDM]  
 b. She walked to town in the rain, *but as result*, she got a cold.  
 [CDM-IDM] (Fraser, 2010:2)

- (14) a. 주전자의 물이 끓지 않았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음료수를 사 먹었다. [IDM-CDM]  
 b. 그 강도가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도리어 안심이 되었다. [CDM-IDM-CDM]

2) 대조담화표지가 ‘난 그게 정말 싫었어. 근데, 그런데도, 어쨌든 할 수 밖에 없었지만..’에서처럼 문장의 앞이나 뒤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Fraser(2010)에 의하면 영어에서는 ‘but’은 ‘but-however’, ‘but-on the contrary’, ‘but alternatively’와 같이 거의 모든 대조담화표지와 함께 쓰일 수 있다. 그러나 ‘yet-alternatively, yet regardless, \*yet instead, \*conversely instead’처럼 ‘yet’을 제외한 다른 대조담화표지들은 거의 중첩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but’의 경우 다른 표지들과 함께 쓰일 때 거의 모든 다른 표지들을 선행한다<sup>3)</sup>. ‘but’은 모든 다른 후행 대조표지들과 같이 사용가능하지만, 담화상 예문 (15c,d)처럼 인과관계가 확실히 드러나는 경우와 (15a,b)와 같이 전환관계인데도 (15e)처럼 쉽표가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15g)에서처럼 반대(opposite)의 담화적 기능을 보이더라도 (15h)처럼 정확한 반대가 아닌 경우에는 비문처럼 해석된다고 하였다.

- (15) a. Jack didn't become a rock star. *But instead* he became a priest.  
 b. Don't try to be a success as an athlete. *But instead* be like your computer-nerd brother.  
 c. I couldn't get through the crowd to the phone. *\*But instead* I had to go around.  
 d. Nothing from the doctor helped. *\*But instead*, we tried a faith-healer.  
 e. Stop thinking about bad things. *\*But instead*, think of something happy.  
 f. He had hope to be able to talk to Sam. *But instead* he could only talk to Mary.  
 g. I could take you to the movies. *But instead* I'm going to take you home.  
 h. The government should get out of the banking business. *\*But instead* it should leave it to the private sector.

(Fraser, 2010:7)

(5)에서의 분류에 따라 한국어에서 대조담화표지의 중첩은 어떤지 살펴보자.

- (16) A: 아, 어? 이제 도대체, 아 글썄 이게 무슨 경우냐고?  
 B: 참 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전화하려고 했어.

첫째, 감탄사의 경우, 감탄사-접속어, 감탄사-부사어, 감탄사-구절처럼 거의 모든 대조표지가 같이 쓰일 수 있다. 이는 담화상 감탄사의 단발적이고 우발적인 면을 고려하면 이해 가능하다. 둘째, 부사어의 경우 접속어나 구절과 함께 쓰일 경우 감탄사 보다는 덜 하지만 상당수의 대조표지가 같이 쓰일 수 있지만 ‘글썄-그렇다고 치고, 글썄-\*교체로, 그래도-글썄, 아무튼-\*혹은’에서처럼 종종 선택적인 배열(sequencing)을 가진다.

- (17) A: 글썄, 아무튼, 물론 제 날에 (돈을) 갚긴 갚아야지요.  
 B: 어디 글썄 그게 쉬워야 말이지. 없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3) Fraser(2010)도 그의 논문에서 but과 however에 대한 sequencing 설명만 하고 있을 뿐 다른 대조표지들에 관한 sequencing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자세한 것은 Fraser(2010)참조.

셋째, 부사어 끼리의 배열은 감탄사 끼리의 배열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듯하다. 하지만, (21a)의 부사어 ‘글썄’, ‘아무튼’의 경우 감탄사로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 (18) a. 사람이 그러면 안되지. *그렇지만* \**그러나* 왜 그랬데?  
 b. 엄마 배고파. *그런데* \**그러나* 밥통에 밥이 없어.  
 c. 사람이 그러면 안되지. *그런데* \**그렇지만* 왜 그랬데?  
 d. *아무튼* *그렇지만* 사람은 겪어봐야 그 인간성을 알 수 있어.  
 e. 철수가 폭풍 속을 헤치고 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하더라구.  
 f.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사람을 때리면 안되지.

넷째, 접속어의 경우 접속어끼리의 배열은 제약이 나타난다. (18a~c)의 예문에서처럼 ‘그런데/그러나/그렇지만’의 경우 서로 중첩이 제한적이어서 같이 쓰일 수 없지만 (18d~f)처럼 이 세 독립적인 대조표지는 다른 대조표지들과는 거의 상응 배열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접속어의 배열에는 어떤 제약이 따르는지 편의상 10개의 대조표지에서 ‘는데, 그런데, 근데’를 ‘그런데’로 통일하고, ‘지만, 하지만’을 ‘하지만’으로, ‘그래서, 그러니까’를 ‘그래서’로, ‘아니’와 ‘대신에’는 그대로 사용하여 비교해보자<sup>4)</sup>.

- (19) a. **그런데**-그래서, 그래서-**그런데** / **아니**-**그런데**, **그런데**-<sup>2</sup>**아니** / **그런데**-**대신에**, **대신에**-\***그런데**, / **그런데**-**그럼**, **그럼**-\***그런데**  
 b. **하지만**-그래서, 그래서-**하지만**, / **아니**-<sup>2</sup>**하지만**, **하지만**-<sup>2</sup>**아니**, / **하지만**-**대신에**, **대신에**-\***하지만** / **하지만**-**그럼**, **그럼**-\***하지만**  
 c. **그러나**-그래서, 그래서-**그러나**, / **아니**-그래서, 그래서-<sup>2</sup>**아니**, / **그래서**-**대신에**, **대신에**-\***그래서** / **그러나**-\***그럼**, **그럼**-\***그러나**

(19)의 조합을 살펴보면, ‘그래서’의 경우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와 함께 사용되어도 담화상 문맥이 적절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아니’의 경우, ‘하지만’과 ‘그래서’와 함께 쓰일 때 쓰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듯(marginal)하다. ‘아니’의 경우 담화상 앞선 발화를 일단 반대하는 담화기능을 보이므로 ‘아니 그런데’와 ‘아니-그래서’가 일상대화에서 많이 쓰이는 반면, ‘아니-하지만’의 경우는 marginal하다. 대신에의 경우, 대신에 뒤에 그런데/하지만/그래서의 경우가 모두 불가하다. 예문을 살펴보자.

- (20) a. A: 엄마가 이거 사줄게. B: *그런데*/*근데* 대신에 저거 사주면 안돼?

4) 선행연구에서 ‘그런데, 그러나,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니까’는 모두 문장 연결부사(서정주, 1978:212)로서 ‘그래서, 그러니까’는 주로 원인을 나타내는 주종접속사이고 ‘그러나’는 대립을 나타내는 병립접속사(김민수, 1983:129)이다. ‘그런데’의 경우 ‘but’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아 대조나 전환의 뜻이 가장 강하고, ‘아니’와 ‘대신에’의 경우 각각 반대(opposition)과 대조(antithetic)의 어휘적 뜻을 가진다. ‘그럼’의 경우 전환과 인과의 뜻이 강하다.

- b. A: 철수에게 물어보자. 어느 걸 사야할지. B: *대신에 \*그런데* 밥이나 같이 먹으면 안돼?
- c. A: 이번 아버님 기일은 그냥 넘어가야 할까봐. B: *그래서 대신에* 내가 저번 주에 먼저 갔다 왔잖아.
- d. A: 아휴, 밥이 하나도 없네. 엄마~. B: *대신에 \*그래서* 빵 사 왔어.

(20b)의 경우 대조의 뜻을 나타내는 대조표지 뒤에 또 다른 대조의 뜻을 갖는 ‘그런데’가 오기 때문에 담화상의 경제성과 효율성의 격률<sup>5)</sup>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 같다. (20d)에서 원인(인과)이나 전환을 나타내는 ‘그래서’의 경우 완전한 대조(antithetic)를 나타내는 ‘대신에’와 함께 쓰였을 때 대조보다는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 우선 되어야함을 보인다. 즉 ‘대신에’의 대조표지는 전환표지보다 그 범위역(scope)이 좁음을 드러낸다. ‘그럼’이 쓰인 담화에서도 ‘그래서’와 마찬가지로 인과관계가 드러나므로 좁은 범위역을 가진 대조를 나타내는 ‘그러나’가 인과관계나 전환을 나타내는 ‘그럼’에 선행하여 나타날 수 없다. 문제는 ‘그래서’와 달리 ‘그럼’의 경우 ‘그런데/하지만/그러나’에 선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한번 더 인용해보자.

- (21) a. *근데* 목적의식이 어느 정도 개입되느냐 하는 것은 글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b. *그런데/\*근데* 목적의식이 어느 정도 개입되느냐 하는 것은 글에 따라 차이가 있다.  
 c. *그럼* 이제 국어 순화의 구체적 방법을 살펴보기로 해요.  
 d. *그러면/\*그럼* 이제 국어 순화의 구체적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노대규, 1989, 안주호, 1997:35에서 재인용)

(21)의 예문을 통하여 가정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데’와 ‘근데’의 담화상 격식성의 차이이다. 즉, ‘그런데’와 ‘그러면’의 경우 격식적인 담화에서 쓰이고 이는 대조담화표지의 격식적 표지-비격식적 표지의 순서쌍을 인정하긴 해도, 비격식-격식의 순서쌍의 표지는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sup>6)</sup>.

#### 4) 범위역(scope)

범위역이란 후행담화와 선행담화간의 관계에 있어 가장 넓은 범위역을 가진 대조표지가 가장 적은 제약(restriction)을 갖는다는 것으로 범위역이 넓을수록 다양한 의미와 담화적 기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며 다른 대조담화표지들과 바꾸어 사용하여도 의미가 통하게 된다.

5) Searle(1969:139)는 “대부분의 인간 행동양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어에서도 최소노력의 원리 즉, 이 경우 최소한의 음성적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의 언표내적 목적을 얻고자 하는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했다(Pragmatics, May, 2007에서 재인용). Fraser(1975:195)는 반대가 성립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더 이상 발화하는 것이 잉여적으로 여겨지면 더 이상 발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담화의 효율성의 원리를 주장한다. 이는 발화 상 똑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하지 않으려는 경제성의 격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

6) a. 엄마, 밥 줘, \*b. 어머님, 밥 줘.

- (22) a. Take a letter. *But/However*, tell me if I am going too fast.  
 b. Don't smoke tobacco. *Instead/but\**, chew the stuff.  
 c. Keep the faith. *On the other hand/conversely*, don't be stupid about it.  
 d. A: I regret that John is sick. B: *But/however\**, John is NOT sick.

Fraser(1997:7)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조담화표지의 경우에도 범위역이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는데, 영어의 'but'에 가장 가까운 '-는데'의 경우<sup>7)</sup> 영어의 'but'처럼 광범위한 행동역을 가지지는 못한다.

- (23) a. 철수가 폭풍 속을 헤치고 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하더라구.  
 b. 엄마 배고파. *그런데 \*그러나* 밥통에 밥이 없어.  
 c. 사람이 그러면 쓰나 *그런데 \*그렇지만* 왜 그랬데?  
 d. *아무튼 \*그런데* 사람은 꺾어봐야 그 인간성을 알 수있어.

위 예문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간단한 사실은 '그런데/그렇지만/그러나'의 경우 중첩해서 쓰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3)의 예문에서 '그런데'를 '그렇지만', '그러나'로 바꾸는 경우 거의 똑같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세 대조표지는 각기 배타적인 범위역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 (24) a. 라임이가 돌아왔는데 *그러면* 영화가 그만뒤야해?  
 b. 라임이가 돌아오면 *\*그런데* 영화가 그만뒤야해?  
 c. 라임이가 돌아온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그만뒤야해?  
 d. 라임이가 돌아온 *데도 \*그런데* 영화가 그만뒤야해?  
 e. 라임이가 돌아온다는데 *그래도* 영화가 그만뒤야해?

이러한 대조표지들의 배열은 각 대조표지들의 범위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문 (24)에서보면 '는데-그러면'은 가능해도 '-오면-\*그런데'의 경우는 불가하고, '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가능해도 '는데도-\*그런데'는 불가한 것을 보면 접속어의 배열에 있어서는 선행되는 대조표지와 후행담화의 대조표지간에 전환이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대조담화표지가 완전한 대조(antithetic)를 나타내는 '대신에'와 같은 대조표지보다 범위역이 넓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격식/비격식의 문제를 보인 '그럼/근데'는 '그러면/그런데'를 선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그러면/그런데'가 격식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넓은 범위역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sup>8)</sup>. 그렇다면, 한국어대조표

7) Do(2006)에 의하면 'but'에 가까운 한국어 CDM은 '-(는)데/-(지)만/-(리)나'이지만 그중 가장 가까운 것은 '(는)데'로 규정한다.

8) 그렇다고는 해도 항상 대조담화표지의 배열에 있어서 앞서 나오는 대조표지가 뒤에 나오는 대조표지보다 항상 범위역이 넓은 것은 아니다. Fraser(2010)에 의하면,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but'이 배열에 있어 거의 항상 선행하지만 'however'의 경우에는 'instead'나 'conversely'와 같은 대조의 경우와 함께 쓰일 때, 범위역이 넓은 'however'가 후행해서 나타난다고 한다.

a. Migrants often will pay up to \$ 3,000 each to be smuggled aboard trains or trucks from Guatemala to the U.S.

지의 범위의 문제는 결국은 각 대조표지의 의미에 따른 담화적 기능에 따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앞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위 10개 대조담화표지를 ‘그런데/근데, 아니, 지만/하지만, 그래서/그러니까, 그럼, 대신, 하지만’의 7개로 분류하고, 다음 대표 대조담화표지의 담화적 기능인 ‘전환, 대조, 정정, 양보, 반대’를 나타내는 예문샘플을 만든 다음 거기에 각 대표표지 6개를 일일이 입력해 보았다.

- (25) a. 아빠는 뚱뚱해, \_\_\_\_\_ 엄마는 안 뚱뚱해. (대조)  
 b. 비가 많이 오네. \_\_\_\_\_ 학교에 안 가는게 어때? (전환)  
 c. 여기 2를 넣었어. \_\_\_\_\_ 3을 넣는 건 어때? (정정)  
 d. 내가 너무 바빴어. \_\_\_\_\_ 내 차례를 양보해 줬지. (양보)  
 e. 사람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 \_\_\_\_\_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반대)

실험결과, ‘하지만(6)>그런데(4)>대신에(3)>그래서(2)>아니(1.5)>그럼(1)’의 범위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정리하자면 ‘하지만’의 경우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지며, ‘그런데/그러나/하지만’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대로 각기 독립적인 범위를 가진다. 그리고 정정이나 반대의 뜻을 가진 ‘대신에’가 그 다음 넓은 범위를 가지며, ‘아니’나 ‘그럼’의 경우 각각 정정, 전환의 의미만 허가하고 나머지 담화기능에는 제약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험군에서는 가장 좁은 범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이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지는 것은 ‘하지만’이 대조, 전환, 정정, 양보, 반대 모두를 아우르는 화제의 전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으로, 결국 후행담화에 나타나는 대조표지들은 선행담화의 의도나 태도를 인지하고 응집하여 논리적으로 또 다른 담화로의 전환을 담당해야하기 때문이다.

### 3.2.3. 의미적 특성

일반적으로 대조담화표지의 담화적 기능은 표(2~3)에서 다루었던 선후담화(명제)의 대조, 전환, 정정, 반대, 양보의 담화적 기능외에 다음과 같은 의미적 기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1) 기대에 대한 부인, 반대, 삭제.
- 2) 화제 전환성(topic-change)
- 3) 정보의 나열(listing information)
- 4) 회피전략(dodging tactic)

---

border .[This doesn't usually happen.] *Instead, however,* the smuggler often accept additional payments from Mexican police and then hand over the migrants.

b. Fans' excitement about the Redskins first-round draft pick was only buoyed by his performance at Saturday's scrimmage. *Conversely, however,* their questions about the team's offense burn as hot as ever just four days before the team's preseason opener at Baltimore.

(Fraser, 2010:6)

- 5) 담화대용성
- 6) 시간차(time difference)
- 7) 생략(omission)
- 8) 회피전략(dodging tactic)

#### IV. 결론

본고에서는 안주호(2009), Fraser(1997, 2009, 2010)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어 대조담화표지의 종류를 실제 담화 스크립트를 이용한 빈도조사를 통해 분류하고 정리해보고 도출된 대표 대조담화표지를 이용하여 한국어 대조담화표지의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실제 담화 스크립트는 격식/비격식, 공식/비공식적 대조담화표지의 사용빈도상의 특징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 드라마 스크립트, 인터뷰 전사자료, 방송용 전사자료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구어/문어간의 비교분석을 위해 논문 분석자료를 더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의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대조담화표지로서 ‘는데, 아니, 그래서, 그럼, -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런데, 하지만, 대신’ 으로 정리 가능하였다. 한국어 구어담화에서의 대조담화표지는 일반적 대화상황에서 보다 인터뷰와 같은 격식적인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런데’의 줄임말인 ‘근데’와 ‘그러면’의 줄임말인 ‘그럼’ 이 구어담화에선 압도적인 사용상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공식적, 격식적 담화에서도 비격식적담화보다 사용빈도상의 우위를 보였다. 또한 논리적인 화행이 이루어져야할 논문에서 인터뷰나 방송용 텍스트보다 훨씬 적은 수의 대조담화표지의 사용이 이루어진 것은 한국어의 논리적인 글쓰기에서 대조담화표지의 역할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 대조담화표지의 경우 영어의 대조담화표지와 마찬가지로 배열상의 특이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감탄사, 부사의 경우 다른 종류의 대조담화표지와 중첩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접속어의 경우 배열상의 제약이 나타난다. 두 대조표지가 같은 담화적 기능을 보이는 경우는 같이 쓰이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고, 담화상 전환이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지가 담화상 대조를 나타내는 표지보다 선행하여 나타나며, 격식적 표지-비격식적 표지의 순서쌍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대조담화표지의 범위역은 ‘하지만>그런데>대신에>그래서>아니>그럼’의 순서로 정리가 가능하였는데 ‘하지만’의 경우가 담화대조표지의 쓰임에 있어서 가장 제약이 적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이러한 순서는 각 대조표지의 담화적 기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Blakemore, D. 1987. *Semantic constraints on relevance*. Oxford: Blackwell.
- Brown, G. 1977. *Listening to spoken English*. London: Longman.
- Brown, H. 2001. *Teaching by principles*. White Plains, NY: Addison-Wesley Longman
- Dascal, M. & Katriel, T. 1977. Between semantics and pragmatics: the two types of “but”-Hebrew “aval” and “ela”. *Theoretical Linguistics*, 4, 143-172.
- Do, A. 2006. Contrastive Discourse Markers: An Examination of their characteristics in Korean.

- Boston University, Dr. Dissertation.
- Edmondson, W. 1981. *Spoken discourse: A model for analysi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Erman, B. 1987. *Pragmatic Expressions in English: A Study of You Know, You See and I Mean in Face-to-face Conversation*. Stockholm: English Department, Stockholm University.
- Fraser, B. 1975. Hedged performatives. In: Peter Cole and Jerry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3: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187-200.
- \_\_\_\_\_. 1990. An approach to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14: 383-395.
- \_\_\_\_\_. 1998. Contrastive discourse markers in English. In: Jucker and Ziv. (Eds.), *Discourse markers: Descriptions and theory pragmatics and beyond*. John Benjamins, 301-326.
- \_\_\_\_\_. 2010b. The Sequencing of contrastive discourse markers in English. *Baltic Journal of the English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e*.
- Lakoff, R. 1971. If's, And's and But's about Conjunction. In: C. Fillmore & T. Langendoen(eds.),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15-150.
- \_\_\_\_\_. 1973. Questionable answers and answerable questions. In Braj B.Kachru, Robert B. Lees, Yakov Malkiel, Angelina Pietrangeli, and Sol Saporta(Eds.), *Issues in Linguistics: Papers in Honor of Henry and Renée Kahan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453-467.
- Langacker, R. W. 1982. Space grammar, analysability, and the English passive. *Language* 58, 22-80.
- R. B. Lees, Y. Malkiel, A. Pietrangeli and S. Saporta (eds.). *Issues in Linguistics: Papers in Honor of Henry and Renée Kahan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chiffrin, D. 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rle, J. 1969 *Speech Acts :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tts, R. 1989. Taking the pitcher to the 'well': Native speakers. Perception of their use of discourse markers in conversation. *Journal of Pragmatics* 13/2. 203-237.
- 강승식. 2002. 한국어 형태소 분석과 정보검색. *홍릉과학*.
- 구유선. 2000. Contrastive Discourse Markers in English and Korean. *사회언어학*, Vol.8, No.1.
- 김민수. 1983. *신 국어학*. 일조각 출판사.
- 김정란. 2009. 대조표지의 연구. *담화와 인지*, 제 16권 3호, 47-64.
- 노대규. 1989. 국어의 구어와 문어의 특성. 매지논총 6집, 연세대학교 매지학술 연구소.
- 백용학. 1996. 화용표지에 관한 연구. *동아영어영문학*, Vol.12, 11-37.
- 서정수. 1987. *국어구문론 연구*. 탑 출판사.
- 서지연. 2007. 영어교육 관련 학술 논문 영문 초록 분석: 수사구조와 담화 표시어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석사논문*.

- 신현숙. 1989. 담화대용표지의 의미 연구- {그래서/그러니까/그러나/그렇지만}을 대상으로 국어학 19, 427-451.
- 안주호. 1992. 한국어 담화표지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구:말), Vol.17, 21-38.
- \_\_\_\_\_. 2009. 한국어교육에서의 담화표지 위계화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3, 135-159.
- Broadcast Script : MBC (시사)뉴스데스크 2010년 11월 12일자 방송 30분 분량.  
MBC (교양)라디오 북클럽 김지은입니다 2010년 11월 7일 20분 분량.  
MBC (오락)무릎팍 도사 2010년 10월 13일 방송 10분 분량.  
KBS (교육/오락)위기탈출 넘버원 2010년 11월 08일 방송 10분분량 등.
- Drama Script : “Desperate Housewives”, Season II, 1~18.  
“Friends”, Season II, 2~10.  
“장미빛 인생”, 1~18.  
“시크릿가든” I, II.
- Interview Script : 조기성 et. al. 2011. 지역문화연구 - 옥골연구 인터뷰 전사자료, 인하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연구자료중에서.
- Written Text : 제 1회 전국 한국어교육전공 석사논문 발표회 발표요지 자료집(2006)  
Chomsky, N(2005) "On Phases"  
Chomsky, N(2007) "Of Minds and Language"  
Kim, S(2003) "Discourse Anaphors *it* and *that* in the Givenness Hierarchy and the Centering Theory", Thesis for Master's Degree. Seogang Univ.

발표자 1: 안정근

소속기관: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연락처: 전화: 010-2612-3219 / 이메일: [j-k-ahn@daum.net](mailto:j-k-ahn@daum.net)

발표자 2: 최은정

소속기관: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연락처: 전화: 010-5506-3103 / 이메일: [20051101@naver.com](mailto:20051101@naver.com)